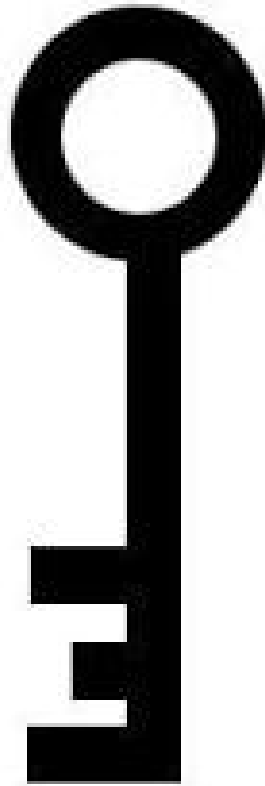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다.’

- 한수 모의고사 분석지 선생님들의 당부



## [F.I.N.A.L. SECRET KEY]

반응하는  
Point

2020학년도 수능 대비 Final  
한수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2회)



##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1%	15번	(문법) - 동음이의어 + 사동 / 피동 판단
오답률 4위	38%	29번	(독서 : 과학) - 연결 관계 추론
오답률 3위	49%	24번	(독서 : 경제) - 두 이론의 공통점 추론
오답률 2위	51%	30번	(독서 : 과학) - 지문에 제시된 이론과 <보기>에 제시된 사례 연결
오답률 1위	62%	25번	(독서 : 경제) - 지문 내용이 구체화된 <보기>의 사례 분석

[문학] 고전시가 : 박인로, ‘선상탄’ 外 / 극 : 이강백,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문법] 11번, 13번, 15번

[독서] 경제 지문 :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피구와 코즈의 이론(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1%) 예측] : 문법 15번 문항

[적절한 선지 판단(정답 선지)]

1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물리다'로 그 형태가 같아요. 게다가 '물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예요. 따라서 이러한 단어를 이해할 때는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동일한 단어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가르다** ㉠[...을 ...으로]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갈다<sup>1</sup>** ㉡[...을 ...으로]①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②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갈다<sup>2</sup>** ㉡[...을]①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

②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고 으깨다.

**갈다<sup>3</sup>** ㉡[...을]①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

[Killer-Point]

피동문	사동문
㉠	㉡

- ①
  - ㉠ : 그들의 의견이 두 편으로 갈렸다.
  - ㉡ : 믹서기에 과일과 얼음을 갈렸다.
- ②
  - ㉠ : 날이 가물어서 밭이 잘 안 갈렸다.
  - ㉡ : 칼 장수에게 무더진 칼을 갈렸다.
- ③
  - ㉠ : 지저분한 수건이 새 수건으로 갈렸다
  - ㉡ : 우리는 키가 큰 친구에게 전구를 갈렸다.
- ④
  - ㉠ : 그녀는 그에게 연탄불을 갈렸다.
  - ㉡ : 주인이 지난달에 새 사람으로 갈렸다.
- ⑤
  - ㉠ : 고기가 생각보다 잘게 갈렸다.
  - ㉡ : 그는 일꾼에게 집 앞의 텃밭을 갈렸다.

사동 / 피동을 구분하는 것만 따지면 크게 어렵지 않은 예문들로 제시되었으나, 단어의 의미까지 같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렸을 수는 있다. 예문이나 사용되는 개념의 난이도보다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차분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기>에 있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파악 및 정리해서 선지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 ㉠ : 그들의 의견이 두 편으로 갈렸다. ⇒ [가르다]의 피동사
- ① ㉡ : 믹서기에 과일과 얼음을 갈렸다. ⇒ [갈다<sup>2</sup>]의 사동사
- ㉢ : 날이 가물어서 밭이 잘 안 갈렸다. ⇒ [갈다<sup>3</sup>]의 피동사
- ② ㉣ : 칼 장수에게 무뎠던 칼을 갈렸다. ⇒ [갈다<sup>2</sup>]의 사동사
- ㉤ : 지저분한 수건이 새 수건으로 갈렸다. ⇒ [갈다<sup>1</sup>]의 피동사
- ③ ㉥ : 우리는 키가 큰 친구에게 전구를 갈렸다. ⇒ [갈다<sup>1</sup>]의 사동
- ㉦ : 그녀는 그에게 연탄불을 갈렸다. ⇒ [갈다<sup>1</sup>]의 사동사
- ④ ㉧ : 주인이 지난달에 새 사람으로 갈렸다. ⇒ [갈다<sup>1</sup>]의 피동사
- ㉨ : 고기가 생각보다 잘게 갈렸다. ⇒ [갈다<sup>2</sup>]의 피동사
- ⑤ ㉩ : 그는 일꾼에게 집 앞의 텃밭을 갈렸다. ⇒ [갈다<sup>3</sup>]의 사동사

[정답 : ③]

[유사 평가원 기출] -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문항

1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 갈다<sup>1</sup> [동] 【...을 ...으로】 ②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나.
- 깎다 [동] ① 【...을】 ③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 물다<sup>1</sup> [동] 【...에】 ①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 물다<sup>2</sup> [동] ① 【...을】 ②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 쓸다<sup>2</sup> [동] 【...을】 ①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정답] ㉠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오답률 4위(38%) 예측] : 독서-과학 29번 문항

[연결 관계 추론]

2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때는 독립적이었던 생명체가 많은 유전 정보를 잃으면 독자적인 대사 활동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퇴화설의 간접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② 한때는 독립적이었던 생명체가 많은 유전 정보를 잃으면 숙주 세포 내에서 내부 공생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퇴화설의 간접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③ 한때는 독립적이었던 생명체가 많은 유전 정보를 잃으면 숙주 세포에 기생하는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화설의 간접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④ 한때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하던 바이러스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소기관으로 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화설의 간접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⑤ 한때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하던 고세균이 바이러스처럼 독자적인 대사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퇴화설의 간접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 이 가설에서는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하던 박테리아인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독자적인 대사 활동이 불가능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로 퇴화한 것을 간접 근거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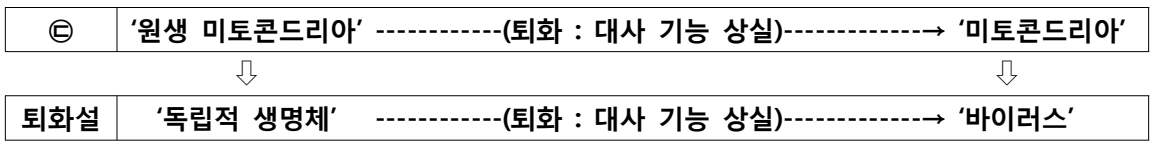
퇴화설은 내부 공생 관계에 있던 독립적 생명체가 유전 정보를 잃고 퇴화하여 바이러스가 되었다는 이론이다.

㉠의 사례와 퇴화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려면 공통점부터 파악해야 한다.

㉠의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퇴화하기 이전 세포와 내부 공생 관계에 있었던 '독립적 생명체'이다. 따라서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퇴화설에서 바이러스가 되기 이전에 세포 내에서 '내부 공생' 관계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독립적 생명체'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대사 기능'을 잃고 세포 소기관으로 퇴화한 '미토콘드리아'는 '바이러스'와 연결시킬 수 있다. 지문의 2문단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밖에서는 아무 대사 활동도 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의 예를 통해 퇴화설은 '내부 공생'하던 어떤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퇴화하여 대사 기능을 상실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듯이, '내부 공생'하던 어떤 독립적 생명체는 퇴화하여 대사 기능을 상실한 '바이러스'가 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내부 공생을 한다는 것은 독립적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유전 정보를 잃으면 독립적 생명체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대사 기능을 상실하여) 내부 공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많은 유전 정보를 잃으면 내부 공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답률 3위(약 49%) 예측] : 독서-경제 24번 문항

[두 이론의 공통점 추론]	
<b>[Killer-Point]</b>	<p><b>24. 윗글의 '피구'와 '코즈'가 모두 동의할 만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b></p> <p>① 시장 가격은 언제나 균형 가격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②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는 항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③ 정부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최적의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과정에 시장 외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⑤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기업이 피해를 당한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④]</b></p> <p>두 이론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를 만나면, 두 이론의 차이점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두 이론이 갈라지는 지점을 먼저 찾으면, 그 이전의 내용은 둘 모두가 동의하는, 다시 말해 '공통점'일 가능성이 높다. 24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피구'와 '코즈'의 이론이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p> <p>'피구'와 '코즈'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 '최적의 생산량'과 '균형 거래량'이 달라지는 경우, '사회적 비용 곡선'과 '사적 생산비 곡선'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차이를 보일 뿐, 근본적인 시장의 작동 원리, 즉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을 따라간다'는 원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은 언제나 균형 가격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은 '피구'와 '코즈' 모두 동의할 만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p>

[유사한 평가원 기출] - 2017학년도 수능 16번	
<b>[Killer-Point]</b>	<p>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p> <p>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p> <p>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p>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과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정답 : ②]**

24번 문제는 '모두 동의할 만한 진술'을 찾는 문제였고, 이 지문의 16번 문제는 '모두 동의하지 않을 만한 진술'을 찾는 문제였다. 두 문제의 발문은 다르지만,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같다. 따라서 이 16번 문제도 위의 24번 문제와 같은 요령으로 접근하면 된다. '갈라지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공통점이 보인다.

지문을 보면 '과인'과 '포퍼'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인정되는 지식이 있느냐', 즉 '분석 명제'가 존재하느냐 여부를 두고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것이지,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가설은 경험적 시험을 통해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 철학자 모두 동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인'과 '포퍼'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답률 2위(약 51%) 예측] : 독서-과학 30번 문항

<b>[지문에 제시된 이론과 &lt;보기&gt;에 제시된 사례 연결]</b>	
<b>[Killer-Point]</b>	<p><b>30. 윗글을 바탕으로 &lt;보기&gt;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보기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미 바이러스는 보통의 바이러스에 비해 몸체가 훨씬 큰 DNA 바이러스로서, 특이하게도 캡시드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의 합성에 관련된 유전 정보도 가지고 있다. 또한 숙주 세포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박테리아인 리케차와 유사한 점이 많아 '홍내'라는 뜻인 미미라는 이름이 붙었다.</li> <li>○ 플라스미드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염색체 DNA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DNA 분자 덩어리로, 박테리아나 고세균의 세포 내에서 발견된다. 플라스미드는 주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독자적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증식할 때 바이러스처럼 염색체 DNA에 적용되는 단백질 합성 시스템을 이용한다.</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미 바이러스와 달리 리케차 박테리아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이겠군.</li> <li>② 미미 바이러스와 달리 플라스미드는 캡시드에 관련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군.</li> <li>③ 독립 기원설은 플라스미드를 DNA 분자 덩어리가 자가 복제를 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하겠군.</li> <li>④ 퇴화설은 미미 바이러스가 한때는 독립적이었던 생명체가 유전 정보를 잃고 퇴화하여 생긴 바이러스라고 주장하겠군.</li> <li>⑤ 탈출설은 플라스미드가 세포 밖으로 탈출하면서 자기 복제에 필요한 효소 등을 얻으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li> </ul>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③]</b></p>
	<p>&lt;보기&gt;는 정보의 덩어리이다. 글이 많은 &lt;보기&gt;를 만나면 먼저 필요한 정보들을 끊어서 정리하고, 지문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는다.</p> <p><b>[플라스미스] = DNS 분자 덩어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독자적인 유전 정보 : &lt;보기&gt;</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연↓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트로트랜스포존 같은 증식 이동이 가능한 세포 내 유전 물질이 세포 밖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자기 복제에 필요한 효소와 유전자 보호에 필요한 단백질을 얻어 바이러스로 탄생했다고 본다. : [지문], '탈출설'관련 내용</li> </ul> <p>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lt;보기&gt;의 [플라스미스]는 '탈출설'과 연관된 예시로 볼 수 있다.</p> <p>③번 선지의 '자가 복제'에 대한 내용은 '탈출설'이 아닌 '독립 기원설'과 연관된 내용인데, 6문단의 '독립 기원설'을 보면, '단백질 '유일하게' 단백질 합성을 일으키는 효소 작용을 할 수 있는 '핵산'(DNA+RNA) 덩어리는 '리보자임'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지문에 따르면 이 '리보자임'은 '독립 기원설', 즉 자가 복제가 가능한 RNA 분자 덩어리가 있다는 근거가 되는 대상이므로, '리보자임'이 효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가 복제가 가능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분자 덩어리의 자가 복제를 위해서는 단백질 합성을 일으키는 효소 작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효소 작용이 가능한 분자 덩어리는 '리보자임' 뿐이므로, [플라스미스] 역시 효소 작용이 가능한, 즉 자가 복제가 가능한 분자 덩어리라고 볼 수 없다.</p>

[오답률 1위(약 62%) 예측] : 독서-경제 25번 문항(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이 구체화된 <보기>의 사례 분석]	
[Killer-Point]	<p>25. &lt;보기&gt;는 뒷글의 ㉠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갑'과 '을'의 협상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뒷글의 '코즈'의 관점에서 &lt;보기&gt;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 &lt; 보기 &gt; —</p> <p>초기 상태에서 갑은 <math>\alpha</math>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고 을은 <math>\beta</math>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는다고 하자. 그리고 갑이 공장에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math>c</math>, 정화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을이 추가로 얻는 생산자 잉여를 <math>v</math>라고 하자. <math>v</math>가 <math>c</math>보다 클 경우 양측의 협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단, 협상 비용은 없으며, 총잉여의 변동은 오직 생산자 잉여의 변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p> <p><b>I.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b> 을은 갑에게 <math>p(c &lt; p &lt; v)</math>만큼의 보상금을 제안하면서 정화 시설 설치를 요구할 것이고, 갑은 이를 수락할 것이다. 이 경우 갑의 잉여는 <math>(\alpha + p - c)</math>, 을의 잉여는 <math>(\beta - p + v)</math>가 된다.</p> <p><b>II.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b> 갑은 정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을에게 동의할 것이다. 이 경우 갑의 잉여는 <math>(\alpha - c)</math>, 을의 잉여는 <math>(\beta + v)</math>가 된다.</p> <p>따라서 어느 경우든 갑과 을의 생산자 잉여를 합한 값은 협상 이후에 <math>(\alpha - c + \beta + v)</math>라는 동일한 값으로 증가한다. 한편, <math>v</math>가 <math>c</math>보다 작을 때에는, 갑과 을의 생산자 잉여를 합한 값이 초기 상태보다 증가하지는 않지만 법적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하든 그 값이 동일한 것은 마찬가지이다.</p> <p>① <math>v</math>가 <math>c</math>보다 클 경우,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 초기 상태보다 갑의 잉여는 증가하지만 을의 잉여는 감소하겠군.                  ② <math>v</math>가 <math>c</math>보다 클 경우,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는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와 달리, 초기 상태보다 총잉여가 증가하지 않는군.                  ③ <math>v</math>가 <math>c</math>보다 클 경우,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는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와 달리, 초기 상태보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겠군.                  ④ <math>v</math>가 <math>c</math>보다 작을 경우,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는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와 달리, 갑과 을의 각각의 잉여가 모두 초기 상태와 달라지지 않겠군.                  ⑤ <math>v</math>가 <math>c</math>보다 작을 경우,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 갑의 공장에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경우로 볼 수 있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④]</b></p> <p>이 문제는 답을 찾는 것보다는, ①~③번 선지를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p> <p>-----</p> <p>일단 <math>v</math>가 <math>c</math>보다 작으면,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 즉 갑이 정화 시설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정화 시설은 설치되지 않는다. 갑은 최소한 <math>c</math>만큼의 보상금이 보장되어야 정화</p>

시설을 설치하려 할 텐데, 을 입장에서는  $v$ , 즉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갑에게 줘야 하는  $c$ 보다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보상을 주지 않으려고 할 테고, 갑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바뀌는 것이 없으므로 이때 갑과 을의 생산자 잉여도  $\alpha, \beta$  그대로, 총잉여도  $(\alpha + \beta)$  그대로이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 $c < p < v$ )라고 하였으니,  $c$ 를 '1',  $p$ 를 '2',  $v$ 를 '3'이라고 가정해보자.  $v$ 가  $c$ 보다 클 경우,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 정화시설 설치 시 갑의 잉여는  $(\alpha + p - c)$ , 즉  $(\alpha + 2 - 1)$ 이 된다. 따라서 초기 상태보다 갑의 잉여는 증가한다. 같은 상황에서 을의 잉여는  $(\beta - p + v)$ , 즉  $(\beta - 2 + 3)$ 이 되므로, 을의 잉여 역시 증가한다.
- ② <보기>에서 총잉여의 변동은 오직 생산자 잉여의 변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므로, 갑과 을의 생산자 잉여를 합친 총잉여 역시 증가할 것이다.
- ③ 지문에 따르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총잉여가 최대가 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  $v$ 가  $c$ 보다 클 때 갑과 을 둘 중 누구에게 법적 권리를 주든 생산자 잉여를 합한 값, 즉 총잉여는 동일한 값으로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두 경우 모두 자원 활용의 효율성은 같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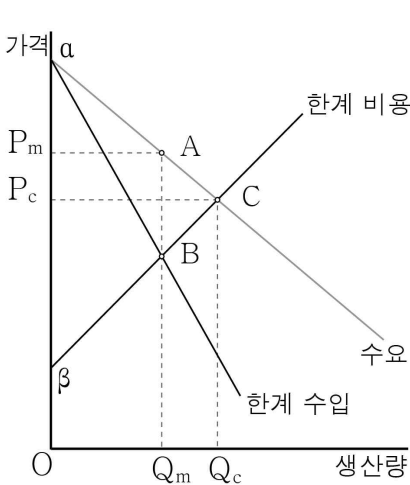
**[유사한 학평 사례] - 2017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낮아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많아 얻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익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부가격설정'이란 어떤 상품에 대하여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 기구 이용료를 생각해 보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 기구 이용료와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매기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낮은 수준으로 매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 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의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이부가격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이때 총잉여는 극대화된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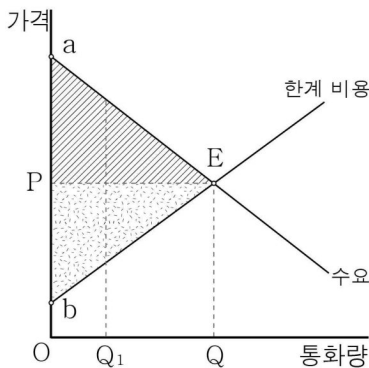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_m$ 이 되고 가격은  $P_m$ 이 되며, 생산자의 수입은 사각형  $OP_mAQ_m$ 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beta P_mAB$ ,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_m\alpha A$ 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적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부가격설정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_m$ 에서  $Q_c$ 로 늘리면 총잉여는 삼각형  $BAC$ 만큼 늘어나게 된다.

\* 한계 비용: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

\* 한계 수입: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판매했을 때 얻는 수입.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지역의 유일한 ○○ 통신사에서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료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 ①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면 ○○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Oa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② ○○ 통신사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화량이  $Q_1$ 일 때 통화료로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 ④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사각형  $OP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⑤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aE$ 에 해당할 것이다.

[정답 : ①]

① 지문에서 이부가격 설정을 통해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경우 총잉여는  $baE$ 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 소비자 잉여인  $PaE$ 를 제외한 삼각형  $PbE$ 가 생산자 잉여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통신사는 소비자가 이용한 통화료에 기본요금을 부과할 것이므로 P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③  $Q_1$ 에서는 P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요 곡선이 형성된다. ④  $OP \times OQ$ 이므로 사각형  $OPEQ$ 에 해당한다. ⑤ 수요 곡선은 수량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나타내므로 가격 P보다 위쪽에 위치한 삼각형  $PaE$ 가 소비자 잉여에 해당한다.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1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 [학생들을 위한 승모의 간곡한 부탁]

- ① 현대 문법 격 조사는 외우자. 부사격 조사는 많지만, 그 외의 것들은 충분히 외울 수 있다. 격 조사는 단순히 품사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장 성분, 문장과 모두 연결되는 개념이다. 꼭 알아 두자.
- ② 중세 문법 격 조사도 다 외우면 좋겠지만, 현대 문법 격 조사만 확실히 외워두어도 문제를 풀 수는 있다. 다만 중세 때 어떤 형태의 격 조사가 있었는지는 알아야 한다. 즉 쓰이는 환경까지 알아두는 것은 선택사항이지만, ‘ㅅ’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된다.
- ③ 기왕 말 나온 김에 11번과는 상관이 없으나, 13번과는 상관이 있는 부탁들 하면, 전성어미는 외우는 것이 좋다. 아니 그냥 외워주면 안될까? 전성어미는 명사 파생 접미사, 명사형 전성어미의 구분, 통사적 합성어 등 많은 부분에 쓰이는 개념이며,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의 절 표지로 기능한다.
- ④ 15번과 관련하여 사동, 피동 접사 역시 꼭 알아두자.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사동, 피동 접사는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머릿속에 아마 이히리기, 이히리기우구추가 떠올랐겠지? 격 조사와 전성어미는 암기하여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하자.

#### [중세의 격 조사](현대 문법 격 조사까지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 ① 주격 조사(주격 조사만큼은 환경까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 < 중세 >

형태	환경	예시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름 + 이
ㅣ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터 + ㅣ
∅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취 + ∅

[참고] ∅(영 주격 조사)는 선택지에 사용되면,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주격 조사’ 정도로 쓰일 것이다.

#### < 현대 >(‘가’는 근대부터 나타났다. / 께서, 에서 역시 중세 때 있었으나 굳이 외우지 말고 현대 문법으로 해결하자.)

형태	환경	예시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기린 + 이
가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승모 + 가
께서	높임 명사 뒤	할아버지 + 께서
에서	단체 무정 명사 뒤	정부 + 에서

② 서술격 조사(주격 조사와 환경이 똑같다. 즉 주격 조사를 알아두면 서술격 조사는 공짜다.)

< 중세 >

형태	환경	예시
이라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름 + <b>이라</b>
ㅣ라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터 + <b>ㅣ라</b>
∅라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 + <b>∅라</b>

< 현대 >

형태	환경	예시
이다	체언 뒤	모범생 + <b>이다</b> , 승모 + <b>이다</b>

③ 목적격 조사

< 중세 >

형태	환경	예시
을 / 을	자음 뒤	먹습 + <b>을</b> , 쌀 + <b>을</b>
를 / 를	모음 뒤	놀애 + <b>를</b> , 싸 + <b>를</b>
르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때, 수의적으로 사용	남금 <b>位(위)</b> + <b>르</b>

[참고] 중세 문법에 목적격 조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모음조화를 묻기 위함이다.

< 현대 >

형태	환경	예시
을	자음 뒤	기린 + <b>을</b>
를	모음 뒤	승모 + <b>를</b>

[참고] 주의하자. ‘을/를’은 보조사도 있다. ㉠ 승모가 밥을(목적격 조사) 많이를(보조사) 먹는구나.

④ 관형격 조사(자주 물어본다. 특히 ‘ㅅ’)

< 중세 >

형태	환경	예시
ㅅ	높임 유경 명사, 무경 명사 뒤	부터 + <b>ㅅ</b> , 나라 + <b>ㅅ</b>
익	평칭의 유경 명사 뒤	물 + <b>익</b>
의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崔九(최구) + <b>의</b>

[참고] ‘ㅣ’로 끝나는 체언 뒤에 ‘익/의’가 결합되면 ‘ㅣ’가 탈락한다. ㉡ 어미 + 의 → 어미(어머님의)

< 현대 >

형태	환경	예시
의	체언 뒤	부처 + 의, 나라 + 의, 승모 + 의

⑤ 부사격 조사

< 중세 >

형태	환경	예시
애/에/예	선행 체언의 모음이 양성 / 음성 / 'ㅣ'모음일 때	바를 + 애, 도솔천 + 예 서리 + 예 / 빅 + 예
익/의	특정 체언에만 연결(특이처격어)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밤 + 익, 곁 + 의
와/과	말음이 'ㄹ', '모음'이면 '와' 말이 자음이면 '과'	달 + 와, 짜ㅎ + 과

[참고] 관형격 조사 '익/의'와 부사격 조사 '익/의'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 현대 문법의 관형격 조사 '의'와 부사격 조사 '에'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현대어 풀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도 되고,
- 확인하고 싶다면 선행 체언을 본다. 관형격 조사 '익/의' 앞에는 유정 명사가, 부사격 조사 '익/의' 앞에는 무정 명사가 온다.

< 현대 >

형태	환경	예시
에	체언 뒤	바다 + 에, 도솔천 + 에, 서리 + 에
와/과	모음 뒤 '와', 자음 뒤 '과'	승모 + 와, 기린 + 과

- 중세에서는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였다.

㉠ 중세 : 나랏 말쓰미 中國에 달아(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⑥ 호격 조사

< 중세 >

형태	환경	예시
하	상위자인 높임 명사 뒤	님금 + 하
(이)여	상위자는 아니나 대우하여 부를 때	觀世音 + 이여
아/야	하위자나 동등한 명사 뒤	阿難 + 아, 長者 + 야

< 현대 >

형태	환경	예시
(이)여/ (이)시여	상위자나 대우하여 부를 때	대통령 + 이여 / 이시여
아/야	하위자나 동등한 명사 뒤, 자음의 뒤 '아', 모음 뒤 '야'	수진 + 아, 승모 + 야

[선택지 해설]

11. ④

정답해설 : 답은 ④야. 먼저, ㉔의 ‘사롭과’의 ‘과’는 ‘비교 부사격 조사’야. 누군가를 길 가는 사람과 똑같이 여긴다는 뜻이므로,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비교 부사격 조사’지. 자, 그럼 ㉔을 보자. ㉔의 ‘果實(과실)와’의 ‘와’는 접속 조사야. ‘과일’, ‘물’이라는 두 명사를 이어주고 있잖아. 즉, ㉔의 ‘과’는 비교 부사격 조사, ㉔의 ‘와’는 접속 조사로 아예 다른 종류의 조사이므로, 서로 이형태가 아니야.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㉑의 ‘미퓌’는 ‘밑에’라는 뜻이야. 이때, ‘밑’은 처소, 즉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지. 이렇게 처소를 나타내는 무정 명사 뒤에 ‘의’가 오는 경우 ‘의’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②를 살펴보자. ㉒의 선지를 해결하려면 중세의 관형격 조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 중세의 관형격 조사는 크게 2가지가 있어. ‘의/이’와 ‘사’이야. 지문에도 나와 있듯이 ‘의/이’는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 쓰이고, ‘사’는 높임의 유정 명사 혹은 무정 명사 뒤에 쓰이지. 즉, 둘은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같은 격조사로, 이형태 관계가 맞아. 그럼 보기를 살펴보자. 먼저, ㉑의 ‘부텃’의 경우, ‘부텃’은 ‘부처’로 높임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사’을 써서 ‘부텃’가 되었지. ㉔의 ‘아드락’의 경우 ‘아들 + 익’로 분석할 수 있어. 이때 ‘아들’은 유정 평칭 명사지. 그러므로, ‘익’를 쓰는 거야.

③를 살펴보자. ㉓의 ‘쑤메’는 ‘꿈에’라는 뜻으로, 분석하면 ‘쑤 + 예’가 돼. 이때, ‘쑤’는 장소, 즉 처소를 뜻하는 명사이고, 그 뒤에 붙은 ‘예’는 처소 부사격 조사야. 다음으로, ㉔의 ‘深山(심산)애’는 ‘깊은 산에’라는 의미로, 이때 ‘심산’도 처소를 뜻하지. 즉, ‘애’ 또한 처소 부사격 조사야. 정리하면 ‘애’는 앞의 명사가 음성 모음을 가진 경우, ‘애’는 앞의 명사가 양성 모음을 가진 경우에 쓰이는 처소 부사격 조사로, 둘이 이형태인 거지.

⑤를 살펴보자. 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세의 주격 조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 중세의 주격 조사는 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 앞 말이 ㅣ모음 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이’, ㅣ모음으로 끝나면 ‘이’의 형태로 실현 돼. 즉, 셋은 이형태 관계를 가지지. 그럼, 선지를 보자. ㉔의 ‘父母(부모)’는 ㅣ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이 나지. 그러므로, 주격 조사로 ‘이’를 사용해야 해. 그럼 ‘父母(부모)이’가 돼. 선지는 맞는 말이야.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안긴 문장(절) / 안은 문장]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기 전)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ㄴ’	나는 승모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2) 부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태현이는 다리가 붓도록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나는 영지가 잡아서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달이 구름에 가듯이 간다.
⑤ 부사형 어미 ‘-수록’	해가 갈수록 경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말도 없이 갔다.



(3)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형절은 전성 어미로 찾고 / 안긴문장의 생략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 그 성분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인지 찾는 게 전부이다.(매우 중요)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 학교에 가는 철수를 보았다. →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철수가 쓴 글을 읽었다. →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 →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 나는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 →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

(4)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절 표지가 없음.)

㉢ 코끼리가 코가 길다.(서술절) / 서울은 인구가 많다.(서술절)

[참고] 서술절은 보어가 있는 홀문장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 이승모는 돼지가 아니다.(‘돼지가’는 보어, 홀문장)

(5)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화자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옮긴 문장

표지	예
① 직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라고’, ‘하고’	나는 “ <u>날씨가 너무 더워!</u> ”라고 소리쳤다. 폭풍으로 나무가 “ <u>쿵!</u> ”하고 쓰러졌다.
② 간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고’	선생님이 나에게 저 가방에는 <u>무엇이 있냐고</u> 물었다. 철수가 영희에게 숙제를 <u>보여달라고</u> 했다.

[참고] 인용절은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혹은 간접 인용에서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의 변화를 묻는다. 이것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보기>에 나타나는 대로 확인만 하면 된다.

**[선택지 해설]**

13. ㉔

**정답해설** : 답은 ㉔야. 먼저, ㉔의 문장을 분석해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을 도출해 보자. 안은 문장은 ‘우리는 소식을 들었다’가 되며, 안긴 문장은 ‘그가 돌아온다’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쓰인 경우지. 즉, 안긴 문장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사용된 관형절이며, 안은 문장의 목적어인 체언 ‘소식’을 꾸며주고 있어. 자, 그럼 안긴 문장인 ‘그가 돌아온다’에서 생략된 성분이 있어? 생략된 성분이 있으려면 안긴 문장을 찾았을 때, 그것이 어색해야 해. 하지만, ‘그가 돌아온다’라는 문장은 어색하지 않아. 이 말은 즉 생략된 성분이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답은 ㉔야.

**[오답풀이]**

㉑을 살펴보자. 먼저, ㉑의 문장을 분석하면 안은 문장은 ‘하늘이 파랗다’가 될 것이고, 안긴 문장은 ‘눈이 부시게’, 즉 ‘눈이 부시다’야. 이는 부사형 전성 어미 ‘-게’를 가진 부사절이며, 안은 문장에서 서술어이자 용언인 ‘파랗다’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생략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자. 안긴 문장인 ‘눈이 부시다’는 현재 문장 자체로도 문장 성립에 아무 문제가 없어. 즉, 안긴 문장에 생략된 성분은 없으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주어’라는 것은 틀렸어.

㉒을 살펴보자. 먼저, ㉒의 문장을 분석하면 안은 문장은 ‘그는 아이를 안아 주었다’가 될 것이며, 안긴 문장은 ‘잠에서 깬’, 즉 ‘잠에서 깨다’가 돼. 또한, 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을 가진 관형절이며, 안은 문장의 목적어이자 체언인 ‘아이’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생략된 성분을 살펴 보자. ‘잠에서 깨다’가 어색하지 않으려면, 주어가 필요해. 즉, 안긴 문장은 본래 ‘아이가 잠에서 깨다’가 될 거야. 정리하면, 안은 문장과 동일한 요소인 ‘아이’가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거야. 정리하면, 안긴 문장 ‘잠에서 깬’은 ‘아이가 잠을 깨다’라는 문장에서 안긴 문장이 될 때, 안은 문장과 동일 요소인 주어 ‘아이가’가 생략되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어 완성된 관형절인 거야. 즉, 생략된 문장 성분이 부사어라는 것은 틀렸어.

㉓을 살펴보자. 먼저, ㉓의 문장을 분석하면 안은 문장은 ‘내 친구는 ~고 한다’야. 그리고, 안긴 문장은 ‘내가 머리가 크다’지. 이때, 안긴 문장의 뒤에 ‘-고’는 인용격 조사야. 즉, 안긴 문장은 인용절임을 알 수 있지. 잠시만,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안긴 문장이 하나 더 보이지? 맞아. 서술절이야. 방금 안긴 문장이라고 한 인용절 ‘내가 머리가 크다’에는 서술절 ‘머리가 크다’가 하나 더 안겨 있어. 서술절을 판단하는 방법은 쉬워. ‘내가 머리가 크다’에서 바로 보이는 서술어는 ‘크다’로 하나지. ‘크다’는 주어로 보이는 ‘내가’와 ‘머리가’ 중에 누구의 서술어야? 맞아. ‘머리가’야. 즉, ‘크다’는 ‘머리’의 상태를 이야기 하는 서술어인 거야. 그럼, 또 다른 주어인 ‘내가’의 상태는 어때? 맞아 ‘머리가 크다’야. 즉, 머리가 큰 상태인 거지! 이는 곧 ‘머리가 크다’가 ‘내가’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라는 의미야. 정리하면, ㉓의 문장에는 ‘인용절’과 ‘서술절’ 두 개의 안긴 문장이 존재해. 자, 그럼 생략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안긴 문장은 ‘내가 머리가 크다’야. 문장 성립에 문제가 있어? 아니, 없지. 이 말은 곧 안긴 문장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안긴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틀렸어.

㉔번을 살펴보자. 먼저, ㉔의 문장을 분석하면 안은 문장은 ‘나는 ~를 두 손 모아 바랐다’가 되며, 안긴 문장은 ‘기회가 있기’, 즉 ‘기회가 있다’야. 이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쓰인 문장으로,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명사이자 안은 문장에서 목적어로 역할하고 있어. 그럼, 생략된 성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안긴 문장은 ‘기회가 있다’로, 문장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즉, 생략된 성분이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선지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틀렸어.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피동 표현

- 능동 :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
- 피동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

(1)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의 특징(통사 구조의 변화)

능동문	↔	피동문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잡-+-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능동사)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잡-+-히-+-었-+-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피동사)
개가 사람을 물었다.(물-+-었-+-다)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물-+-리-+-었-+-다)
몽룡이가 춘향이를 안았다.(안-+-았-+-다)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안겼다.(안-+-기-+-었-+-다)

- ①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뀔 때는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자동사’로 바뀐다.
  - 예외 : 자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도 있다. ㉠ 종이 올다. → 종이 올리다.
  - 통사적 피동문의 경우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을 수 있다. ㉡ 길이 넓다. → 길이 넓어지다.
- ②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로 대응된다.
- ③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대응된다.
- ④ 능동문의 서술어가 피동문에서는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결합한 피동사나 ‘-아/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으로 바뀐다.

(2) 피동 표현 만들기

① 파생적 피동(단형 피동) : 피동 접미사를 이용하는 방법

피동 접미사	예
-이-	산이 <u>보</u> 이다. 나뭇가지가 <u>썩</u> 이다. 이 글은 두 문단으로 <u>나뉘</u> 다.
-히-	성문이 <u>단</u> 히다. 안개가 <u>걸</u> 히다. 책장에 책이 <u>꽂</u> 히다.
-리-	그림이 벽에 <u>걸</u> 리다. 나무에 사과가 <u>달</u> 리다. 벽에 구멍이 <u>뚫</u> 리다.
-기-	눈이 <u>감</u> 기다. 실이 <u>꿍</u> 기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u>안</u> 기다.
-되(다)	의견이 만장일치로 <u>가</u> 결되다. 수익금 전액이 문화 사업에 <u>사</u> 용되다. 도시가 <u>형</u> 성되다.

② 통사적 피동(장형 피동) : ‘-아/어지다’

피동 표현	예
-아/어 지다	버스가 <u>멀어</u> 지다. 웃고름이 <u>풀어</u> 지다. 소원이 <u>이루어</u> 지다. 책상이 <u>튼튼</u> 하게 <u>만들어</u> 지다. 유학 갈 기회가 <u>주어</u> 지다.

**2. 사동 표현**

- 주동 : 주어가 행동이나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
- 사동 :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

**(1)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의 특징**

- ① 사동문은 원칙적으로 모두 타동사이다. (목적어 존재)
- ② 주동문과 달리 사동문에서는 사동주가 주어로 새롭게 도입된다.
- ③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대응된다.
- ④ 주동문의 서술어가 사동문에서는 사동 접미사 ‘-이/-히/-리/-기/-우/-구/-추’ 또는 ‘-시키(다)’가 결합한 사동사나 ‘-게 하다’가 결합한 사동 표현으로 바뀐다.

**(2) 사동 표현 만들기**

① 파생적 사동(단형 사동) : 사동 접미사를 이용한 방법

사동 접미사	자동사 어근 + 사동 접미사	타동사 어근 + 사동 접미사	형용사 어근 + 사동 접미사
-이-	햇살이 고드름을 <u>녹이다</u> . 철수가 수지를 <u>죽이다</u> . 그가 자신의 신분을 <u>속이다</u> .	그가 나에게 사진첩을 <u>보이다</u> .	마을 사람들이 독을 <u>높이다</u> .
-히-	엄마가 김치를 <u>익히다</u> . 할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u>앉히다</u> .	아이에게 옷을 <u>입히다</u> . 아이들에게 책을 <u>읽히다</u> . 할머니에게 아이를 <u>업히다</u> .	마을 사람들이 거리를 <u>좁히다</u> . 주인이 집을 <u>넓히다</u> . 조명탄이 사방을 <u>밝히다</u> .
-리-	동건이가 연을 하늘로 <u>날리다</u> . 회수가 팽이를 <u>돌리다</u> . 의사가 사람을 <u>살리다</u> .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u>물리다</u> .	
-기-	나무꾼이 토끼를 나무 뒤에 <u>숨기다</u> . 선생님이 학생을 <u>웃기다</u> . 승모가 음식을 <u>남기다</u> .	할머니 품에 안기를 <u>안기다</u> . 엄마가 아이의 옷을 <u>벗기다</u> . 선생님이 수지에게 일을 <u>맡기다</u> .	
-우-	식구들이 집을 <u>비우다</u> . 선생님이 자는 학생을 <u>깨우다</u> .	노인이 젊은이에게 짐을 <u>지우다</u> .	
-구-	어깨를 한번 <u>쓱구다</u> . 할머니가 술을 <u>달구다</u> .		
-추-			그가 걸음을 <u>늦추다</u> . 엄마가 방의 온도를 <u>낮추다</u> .
-시키(다)		감독이 선수에게 훈련을 <u>반복시키다</u> . 선생님이 학생에게 노래를 <u>연습시키다</u> .	

[참고] ‘-시키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한다.

② 통사적 사동(장형 사동) : ‘-게 하다’

사동 표현	예
-게 하다	어머니가 손녀에게 옷을 <u>입게</u> 하셨다. 나는 동생에게 우유를 <u>마시게</u> 하였다. 아버지가 나에게 머리카락을 <u>자르게</u> 하셨다.

[선택지 해설]

15. ㉓

**정답해설** : 답은 ㉓이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째, 서술어로 쓰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둘째, 문장 중 ㉑은 피동문, ㉒은 사동문인지 파악하는 거야. 참고로, 피동은 주어가 무언가를 당하는 것이고, 사동은 주어가 무언가를 다른 대상에게 시키는 것, 즉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먼저, ㉑의 '지저분한 수건이 새 수건으로 갈렸다'에서 '갈렸다'는 '갈다'의 ①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져. 동시에, '지저분한 수건'이 누군가에 의해 갈아졌으므로 이는 '피동문'이야. 즉, '갈- + -리- + -었- + -다'에서 '-리-'는 피동 접미사 '-리-'지. 다음으로, ㉒의 '우리는 키가 큰 친구에게 전구를 갈렸다'에서 '갈렸다' 또한 '갈다'의 ①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져. 동시에, '우리'라는 주어가 '키가 큰 친구'에게 전구를 갈도록 시켰으므로, 이는 사동문이야. 즉, '갈- + -리- + -었- + -다'에서 '-리-'는 사동 접미사 '-리-'지.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먼저, ㉑의 '그들의 의견이 두 편으로 갈렸다'에서 '갈렸다'는 '가르다'의 의미를 가져. 동시에, '그들의 의견'은 무정 명사로 누군가에게 갈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 즉, '가르- + -이- + -었- + -다'에서 '-이-'는 피동 접미사 '-이-'지. 다음으로, ㉒의 '믹서기에 과일과 얼음을 갈렸다'에서 '갈렸다'는 '갈다'의 ②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져. 동시에, 생략된 주어인 누군가가 '과일과 얼음'을 간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이는 사동문에 해당해. 즉, '갈- + -리- + -었- + -다'에서 '-리-'는 사동 접미사 '-리-'지.

②를 살펴보자. 먼저, ㉑의 '날이 가물어서 밭이 잘 안 갈렸다'에서 '갈렸다'는 '갈다'의 ①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져. 동시에, 주어인 '밭이' 누군가에게 갈림을 당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 즉, '갈- + -리- + -었- + -다'에서 '-리-'는 피동 접미사 '-리-'지. 다음으로, ㉒의 '칼 장수에게 무더진 칼을 갈렸다'에서 '갈렸다'는 '갈다'의 ①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져. 동시에, '칼 장수'라는 주어가 무더진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므로, 사동문에 해당 돼. 즉, '갈- + -리- + -었- + -다'에서 '-리-'는 사동 접미사 '-리-'지.

④을 살펴보자. 먼저, ㉑의 '그녀는 그에게 연탄불을 갈렸다'에서 '갈렸다'는 '갈다'의 ①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져. 동시에, 주어인 '그녀'가 '그'에게 연탄불을 갈도록 시켰으므로, 이는 사동문이야. 즉, '갈- + -리- + -었- + -다'에서 '-리-'는 사동 접미사 '-리-'지. 다음으로, ㉒의 '주인이 지난달에 새 사람으로 갈렸다'에서 '갈렸다'도 '갈다'의 ①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져. 동시에, 주어인 '주인'이 새 사람으로 바뀔을 당했으므로, 이는 피동문이야. 즉, '갈- + -리- + -었- + -다'에서 '-리-'는 피동 접미사 '-리-'지.

⑤를 살펴보자. ㉑의 '고기가 생각보다 잘게 갈렸다'에서 '갈렸다'는 '갈다'의 ②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져. 동시에, '고기'라는 주어가 누군가에게 갈림을 당했으므로 이는 피동문이야. 즉, '갈- + -리- + -었- + -다'에서 '-리-'는 피동 접미사 '-리-'지. 다음으로, ㉒의 '그는 일꾼에게 집 앞의 텃밭을 갈렸다'에서 '갈렸다'는 '갈다'의 ①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져. 동시에, 주어인 '그'가 일꾼에게 텃밭 가는 것을 시켰으므로 이는 사동문이야. 즉, '갈- + -리- + -었- + -다'에서 '-리-'는 사동 접미사 '-리-'지.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극 [43~45번 지문] [이강백, '동지설텔 꽃 본 듯이'] '나는 위대합니다! 나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인물이 된 것이죠.'

#EBS 수능완성 연계 #수능완성 (p210~212)

[전체 줄거리]
<p><b>[지문 출제 부분]</b> 열두 명의 자식을 키우는 가난한 집의 홀어머니가 어느 날 죽 끓이는 솥 앞에 치마저고리만 남겨 두고 사라진다. 그 죽을 먹은 만누나와 여덟 자식은 실성하고, 늦게 와서 죽을 먹지 못한 세 자식은 10년 기한을 두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으면서 각각 정승, 승려, 광대가 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찾는다. 기약한 10년이 되어 열두 남매가 모이고, 정승이 된 만형은 어머니와 똑같은 외모의 여인을 찾아오고, 승려가 된 둘째는 불상을 찾아오고, 광대가 된 막내는 각시 광대를 찾아온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지에게 어머니의 치마저고리를 입혀 본 결과 각시 광대만이 어머니의 옷을 입고 춤을 춘다. 이에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은 각시광대를 어머니라 부르며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춘다.</p>

[읽기 전] '보기'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지문을 이해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p>전통적인 연극은 무대 위의 사건을 현실로 보게 하는 <b>극적 환상을 주조하여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b>한다. <b>이와 달리 메타극은 무대 위 사건이 연극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연극에 대한 성찰을 유도</b>한다. 「동지설텔 꽃 본 듯이」는 메타극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극중 상황으로 볼 때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들이 서로 소통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무대 위에서 연출하여 <b>무대 공간이 현실 공간이 아님을 부각</b>한다는 점, <b>극중 인물이 소품이나 대사를 통해 자신이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임을 스스로 폭로</b>한다는 점 등이 그런 요소이다.</p>	
<p>&lt;보기&gt; poin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건이 연극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연극에 대한 성찰 유도</li> <li>2. 무대 공간이 현실 공간이 아님을 부각</li> <li>3. 자신이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임을 스스로 폭로</li> </ol>
<p><b>[tip]</b> ‘극갈래’는 크게 <b>[정통극]</b>과 <b>[실험극]</b>으로 나눌 수 있다. [정통극]은 쉽게 ‘행동과 묘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작품에 대한 관객의 몰입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와 달리 [실험극]은 서술자가 관객에게 말을 거는 방식 혹은 이 작품처럼 비현실적인 장면을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b>관객이 작품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b>한다. 이를 통해 [실험극]은 <b>관객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게 유도</b>한다.</p>	

[읽는 중] '극문학은 지문을 읽을 때 현대소설처럼 읽고, 문제 풀 때에는 고전소설처럼 풀면 된다. 결국 발화가 중요하다.'

[앞부분 줄거리] 열두 명의 자식을 키우던 어머니가 사라지자, 세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 떠나고, 집에 남은 자식들은 그들이 어머니를 찾아 돌아오길 기다린다.

다섯째 : (땅에 엎드려 귀를 댄다.) 오빠들 소리가 들린다! 막내 소리도 들려!

여섯째 : 어떻게 그걸 알아?

다섯째 : 땅에 귀를 대면 소리 들려 알지!

여덟 자식들 : (모두 엎드려 땅에 귀를 댄다.) 들린다! 들려!

일곱째 : (일어나서 허공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 냄새가 난다! 큰형, 작은형, 막내의 냄새가 나!

여덟 자식들 : (모두 일어나서 냄새를 맡는다.) 그래, 냄새가 난다!

말누나 : 그런데, 큰오빠의 비명이 들려!

여덟 자식들 : 살려 달라, 비명이 들려!

(무대 앞 왼쪽.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만형이 등장한다. 기진맥진한 모습이다. 무대 오른쪽에는 사냥하러 나온 정승의 아들과 하인들이 등장한다.)

• <보기>에서 제시된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들이 서로 소통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

**[보기]** 실험극은 정통극과 달리 작품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기보다 몰입을 방해하여 오히려 관객이 작품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유도한다. 따라서 작품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상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끔 만드는, 의도된,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선 자연스러운 이해를 기대하기보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제시하는 작가의 의도나 목적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만형 : 누구 없소? 제발 나를 좀 살려 주시오!

말누나 : (메아리를 흉내 내어) 그 숲속에 누구 없소? 우리 오빠 좀 살려 주시오!

여덟 자식들 : (메아리처럼 반복한다.) 나를 좀 살려 주시오!

정승 아들 : 잠깐 멈춰라!

하인들 : (걸음을 멈춘다.)

정승 아들 : 방금 무슨 소릴 못 들었더냐?

하인들 : 메아리요, 메아리.

정승 아들 : 분명 사람의 비명 소리였다.....

만형 : 나 좀 살려 주시오!

하인들 : 저쪽이다! 저쪽 숲속에서 들려!

(정승의 아들과 하인들이 무대를 한 바퀴 돌아 만형이 있는 곳으로 간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만형은 긴장이 풀린 탓인지 쓰러진다. 정승 아들이 하인들에게 명령한다.)

**정승 아들:** 그냥 두면 죽겠다. 집으로 데려가자!

(하인들, 기절한 만형을 데리고 퇴장한다)

**만누나:** 큰오빠는 살았다. 작은오빠가 걱정이다!

**여덟 자식들:** (땅에 엎드려 귀를 댄다) 들린다, 들려! 작은형님 목소리다!

**[중략 줄거리]** 중국에 볼모로 잡혀 있던 왕자를 대신할 새로운 볼모로 정승 아들이 천거된다. 정승 아들은 자기 대신 만형을 중국으로 보낸다.

**사신들:** 왕자님, 태후께서 마음 변하시기 전에 어서 떠나셔야 합니다.

**왕자:** 서둘지 말아라. 나는 이 가엾은 볼모에게 진실을 알려 주고 싶다. 볼모란 권력의 희생물이다. 눈을 부릅뜨고 저주하라!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하라! 바로 그것이 무표정한 얼굴보다 볼모로서의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모습이다! (만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리 설명해 봤자 그대 얼굴엔 표정이 없군.

**사신들:** (안절부절못하며 재촉한다.) 어서 떠나십시다, 왕자님.

**왕자:** 그래, 떠나자. (만형에게) 나는 표정 없는 그대의 얼굴을 잊지 않겠다. 만약 그대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나는 그대를 정승으로 삼으리라. (태후에게 엎드려 작별의 절을 한다.) 태후마마,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옵니다. 부디 옥체 영생하옵소서.

**태후:** 그대는 운이 좋구나. 중국에는 볼모로 잡혀와 평생을 보내다가 죽은 왕자들이 수두룩하다.

**왕자:** (황제에게 작별의 절을 한다.) 폐하, 한없는 성덕을 입고 돌아가옵니다.

**황제:** 한번 볼모는 영원한 볼모니라. 그대는 임금이 되어서도 짐에게 순종할지이다.

(중국 태후의 거대한 형상이 무대 위로 올라간다. 그 형상 뒤에서 태후의 역할을 했던 여배우가 현대 복장을 입은 모습을 드러낸다. 왕자와 사신들이 퇴장한다. **만형의 얼굴 표정이 고통으로 서서히 일그러진다. 그는** **와는 대조적으로 태후 역의 배우는 즐거운 표정이다.**)

**[110]** 극 갈래의 지시문은 인물의 상황, 정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에서의 출제 빈도 역시 높다. 그러므로 현대 소설에서 정서에 표시하며 읽는 것처럼, **극 갈래에서는 지시문을 확인**해 가며 읽어 내려가자. 특히 정통극에서는 더더욱 지시문이 중요하다.

**만형:** 갇혔습니다!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 연극의 인물 속에 나 자신이 갇혀 버리는 때가 있어요! (자신의 목을 부여잡으며) 숨통이 딱 막힌다! 나는 완전히 자유를 잃었다!

**태후:** 나는 자유롭고, 나는 위대합니다! 나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인물이 된 것이죠. 나는 중국의 황제마저 내 마음대로 조종해요. (커다랗게 웃으며) 호호, 호호호, 뜨거운 쾌감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흐른다! 내 육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희열에 차서 부르르 떨며 되살아난다! 이대로 천년을 살고 싶구나! 이대로 만년을 살고 싶구나!

**만형:** 아니다, 이 볼모의 인물은 결코 나 자신이 아니다!

**태후:** 이 쾌감은 오직 나 자신의 것이다. 그 누가 감히 나눠 갖기를 바랄 것이냐!

- 이강백,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읽은 후] 'EBS 연극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BS 연극 POINT	
<b>구성과 의미</b>	1991년 '연극 영화의 해'를 기념하여 창작된 이 작품은, 연극을 하는 배우들의 이야기에, 자식들이 죽을 꿈이다가 <b>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극중극의 형식</b> 으로 삽입되어 있다. 어머니를 찾아 나선 지 십년이 지난 후 만형은 정승이 되어 어머니와 겉모습이 똑같은 여인을 데려오고, 막내는 떠돌이 광대가 되어 각시 광대를 데려온다. 여기서 만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 둘째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 막내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형, 둘째, 막내는 각각 정치, 종교, 연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각시광대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에서 <b>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연극의 가치에 대한 주제의식</b> 을 드러내고 있다.
<b>주제</b>	삶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예술의 가치와 의의
'수능완성' <보기>	
이 작품은 크게 <b>배우들의 공간, 자식들의 공간, 삼 형제의 공간이 겹쳐 있는 독특한 구조</b> 를 갖는다. 배우들의 공간에서 배우들은 현실 속 배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식들의 공간에서 남은 자식들은 어머니를 찾으러 떠난 삼 형제의 상황을 알려 주고 극의 해설자의 역할을 한다. 삼 형제의 공간에서 만형과 둘째, 막내는 어머니를 찾아 나선 각자의 길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경험한다. 이와 함께 이 작품은 연극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연극인 <b>극중극의 형식으로, 자식들과 삼 형제의 이야기는 전체 연극 속에 삽입된 또 하나의 연극이 된다</b> . 배우들의 공간, 자식들의 공간, 삼 형제의 공간은 다층 구조를 이루면서 서로 개입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섞이면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b>관객은 이러한 세 개의 공간을 보면서 연극이 곧 환상이라는 것을 경험</b> 하게 된다. 또한 배우가 관객들을 극에 끌어들이므로써 <b>관객들이 극에 몰입하여 동화되는 것을 방해</b> 한다.	
<b>&lt;보기&gt; point</b>	1. 배우들의 공간, 자식들의 공간, 삼 형제의 공간이 겹쳐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2. 극중극의 형식으로, 전체 연극 속에 삽입된 또 하나의 연극 3. 관객은 세 공간의 연극을 보면서 연극이 곧 환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관객들이 극에 동화되는 것을 방해.
<b>발문</b>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답인 선지</b>	⑤ [E]는 삼 형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들이 각자 맡은 배역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를 함으로써 연극이 곧 환상이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 주고 있군. ⇨ [E]는 막내와 만형이 하인들의 눈을 피해 서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내용으로, 삼 형제의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형과 막내가 옷을 바꿔 입은 것은, 만형이 하인들 몰래 빠져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는 배역에는 변함이 없고 옷만 바꾸어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들이 서로의 배역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를 통해 연극이 곧 환상임을 보여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16~20번 지문][박인로, '선상탄' & 최두석, '장화홍련'] '비선에 달관자들 생애 선다면 귀족들 상풍에 낙엽같이 허락하라'  
#EBS 수능특강 연계 #박인로, '선상탄'(in수능특강(p69))

[읽기 전] '보기를 가이드라인으로 작품 해석의 틀을 갖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p>「선상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후 부산의 통주사로 부임한 박인로의 <b>우국충정이 담긴 작품</b>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b>전란으로 인한 비분강개와 적국에 대한 적개심</b>을 토로하면서 <b>무인(武人)으로서의 기백과 투지</b>를 표출하는 한편, 적국을 항복시킨 다음에 찾아올 <b>태평성대에 대한 염원</b>을 드러내고 있다.</p>	
작품에 담긴 의미	<p>① 우국충정 ② 전란으로 인한 비분강개 및 적국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그에 따른 기백과 투지 ③ 태평성대에 대한 염원</p>
<p><b>[tip]</b> &lt;보기&gt;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된 내용을 알았다면 특정 어휘는 모르더라도 '작품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고전시가를 읽어 내려가다가 <b>모르는 어휘나 구절을 보면, 해당 맥락에 연관된 어휘나 구절 정도로 이해</b>하고 내려가자.</p>	

[읽는 중] '모르는 어휘 및 구절은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기보다 기호 정도로 생각하고 시상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이해해 보자'

(가)

선상(船上)에 배회하며 고금을 사억(思憶)하고  
어리 미친 회포(懷抱)에 헌원씨(軒轅氏)\*를 애다노라  
대양이 망망(茫茫)하여 천지에 들렸으니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 만 리 밖의 어느 사이(四夷) 엿볼런고

**[tip]**

- 고전시가에서 **설의, 영탄, 대구 이 세 표현상의 특징은 안 나오는 작품을 찾기가 힘들다**. 특히 여기서 설의는 해석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엉뚱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설의는 해당하는 서술어 기본형의 반대 의미로 보통 서술된다. 그러므로 위 시구는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 만 리 밖의 어느 사이(사방의 오랑캐왜구)도 엿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곧 '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화자가 전란의 타을 배로 돌리며 헌원씨를 원망함**을 알 수 있다.
- 앞서 말했듯 고전시가에서 설의, 영탄, 대구 이 세 표현상의 특징은 안 나오는 작품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셋 중 하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선지는 **가장 나중에 확인**하는 게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중략)

이 몸이 변변찮아 신하의 몸이지만  
궁달(窮達)\*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은들  
우국(憂國) 단심(丹心)이야 어느 각(刻)에 잊을런고  
강개(慷慨)에 겨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마는  
조그만 이 몸이 병중(病中)에 들었으니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았으니\*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온전하고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Tip]** 여는 '시 해석'처럼 고전시가에서도 **어미는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중에서 **'-니'는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여러 이유를 나열할 때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나열된 여러 구절들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면 **주장(결론)부터 먼저 찾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절구투(鼠竊狗偷)\*가 조금이나 두려울까  
비선(飛船)에 달려들어 선봉(先鋒)에 선다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칠종칠금(七縱七擒)\*을 우린들 못할쏘냐  
준피(蠹彼) 도이(島夷)\*들이 쉬이 항복하려무나  
항자(降者) 불살(不殺)이니 너를 구태 섬멸(殲滅)하라  
오왕(吾王) 성덕(聖德)이 욕병생(欲竝生)\* 하시니라

**[Tip]** 각주는 안 읽다 나중에 몰아서 보려하지 말고, 그때 그때 아래에서 확인하며 읽어 내려가도록 하자.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요순(堯舜) 군민(君民) 되어서  
일월 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하리니  
전선(戰船) 타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晩)하고\*  
추월 춘풍(秋月春風)에 높이 베고 누워서  
성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하노라

**[EBS 주의]** 배를 만들었다는 현원씨를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원망을 거두고 왜적 섬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곧 화자가 **상황을 비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맞으나 체념과 절망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 \* 현원씨: 수레와 배로 새로운 곳을 다니게 했다는 전설 속의 황제.
- \* 궁달: 벼슬길에 나아감과 나아가지 못함.
- \* 사제갈도~멀리 쫓고: 죽은 제갈량이 살아 있는 사마의를 물리쳤다는 고사에서 끌어온 표현.
- \* 발 없는~잡았으니: 방연의 모함으로 다리를 잃은 손빈이 지략을 이용하여 방연을 사로잡았다는 고사에서 끌어온 표현.
- \* 서절구투: 쥐나 개처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무리.
- \* 칠종칠금: 나관중의 「삼국지」를 인용한 것으로, 제갈량이 맹획과 일곱 번 싸워 일곱 번 항복을 받았다는 뜻.
- \* 준피 도이: 구물거리는 저 섬나라 오랑캐.
- \* 욕병생: 함께 살고자 함.
- \* 어주에 창만하고: 고기잡이배에서 저물도록 노래하고.
- \* 해불양파: 거센 파도가 일지 않음. 임금의 선정(善政)을 뜻함.

**(나)**

눈동자 속에 가득한 꽃  
그중 장화홍련(薔花紅蓮)을 읽는다

부러진 가로수 가지에서 안개가 피어나고 무진의 거리를 장화가 걷는다. 몇 군데 가게를 들러 미래의 아기 옷을 사 들고 문을 여는 순간 비칠 쓰러졌다. 홍련은 마구 뛰었다. 어느 낯선 민가의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기다리던 장쇠는 이미 칼을 거두었다. 안개가 덮여 왔다. 자욱이 숨 막히게 그녀의 치마가 바람에 날려 다녔다.

교외의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장미가, 연못에서는  
연꽃이 썩는다  
내 눈동자도 썩어 들어간다.

- 최두석, 「장화홍련」 -

(다)

인유란 잘 알려진 문구(文句)나 고사(古事), 전설, 이야기, 인명(人名) 등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강조하거나 글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인유의 방식으로는 출처를 밝히는 명인법과 출처를 밝히지 않는 암인법이 있다.

과거의 문인(文人)들은 인유법을 쓸 때 인유하는 문구나 고사 등을 본래의 의미대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박인로는 「선상탄」에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서절구투'라는 문구를 아무런 의미의 변용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왜란을 일으킨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반면 현대의 시인들은 잘 알려진 문구나 이야기를 출처와는 전혀 다른 맥락 속으로 끌어들이어 새로운 의미나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최두석의 「장화홍련」은 의붓어미의 구박을 받다가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홍련의 이야기를 폭력이 횡행하는 현대 사회라는 새로운 맥락 속으로 끌어들이어 현대 사회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환기하고 있다.

**[Tip]** 평론은 가속을 위주로 하되, 밑줄 친 부분처럼 작품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있거나, 작품이 두 작품인데 설명 방향이 두 갈래라면, 그 부분은 조금만 감속하며 읽는다. 사실 상 선택지를 미리 읽는 것과 같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읽으면서 평론에서 썼던 단어들을 차분히 무의식에 남겨두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개 중에 하나 고민될 일, 헛갈리는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것과 같다.

한편, 인유는 독자가 인용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알고 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작가와 독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읽은 후] 'EBS 연극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상탄' EBS 독해 포인트(in 수능특강)	
이 작품은 전쟁 가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임진왜란이 끝난 후 부산에 통주사로 부임한 작가의 상황과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b>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우국충정의 마음</b> 을 드러내고, 설분신원할 것을 다짐하며 <b>기개와 의지를 표출</b> 하고 있다. 특히 판옥선을 탄 현재의 상황과 연관 지어 현원씨와 진시황에 대한 <b>원망스러움</b> 을 표출하고, 풍류를 즐기던 배를 떠올리며 <b>태평성대를 염원</b> 하는 등 전란에 대한 관념과 감정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b>주제</b>	우국충정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
<b>표현상의 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색채 이미지를 활용</b>하여 배경이 되는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함.</li> <li>• <b>유사한 구절을 반복</b>하여 운율감을 형성함.</li> <li>• <b>의문형의 문장</b>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부각함.</li> <li>• <b>비유적 표현</b>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li> <li>• <b>다양한 고사</b>를 인용하여 화자의 심정과 의지를 드러냄.</li> </ul>
<b>전체 작품 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사: 병선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의 적막함</li> <li>• 본사 1: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현원씨를 원망함.</li> <li>• 본사 2: 왜적이 생겨나도록 한 진시황을 원망함.</li> <li>• 본사 3: 풍류와 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를 떠올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4: 판옥선을 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 함.</li> <li>• 본사 5: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li> <li>• 본사 6: 왜적을 무찌르고 설분신원할 것을 다짐함.</li> <li>• 결사: 태평성대를 염원함.</li> </ul>
<b>'수능특강' &lt;보기&gt;</b>	
<p>노계 박인로는 조선의 혼란기였던 16, 17세기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다른 양반들과 달리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경험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b>박인로의 작품에는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b>이 표출되기도 한다. 「선상탄」은 박인로가 부산에 통주사로 부임하여 국경을 지키며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전란이라는 <b>현실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쟁과 관련한 관념적인 접근</b>을 보여주고 있으며, 씩씩한 기상을 살려 나라를 위해 <b>충성하겠다는 다짐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b>이 잘 드러나 있다.</p>	
<b>&lt;보기&gt; point</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은 <b>즐기는 장소</b>임과 동시에 <b>학문 수양의 공간</b></li> <li>2. 사상전개에 따른 계절의 흐름</li> </ol>
<b>발문</b>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b>않은</b> 것은?
<b>답인 선지</b>	<p>③ '일엽주'와 비교하면서 '판옥선'을 타며 느끼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도외시했던 양반에 대한 반감을 읽어 낼 수 있군.</p> <p>⇒ '판옥선'을 타며 느끼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현실 문제를 도외시했던 양반에 대한 반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는 것이다.</p>
<b>EBS 독해 포인트(in 사용설명서)</b>	
<b>석일(과거)</b>	<b>금일(현재)</b>
배반이 낭자함.(술상이 흩어져 있음) ⇒ 풍류를 즐기며 사는 삶	대전 장창(칼과 창)만 있음. ⇒ 풍류를 즐기며 사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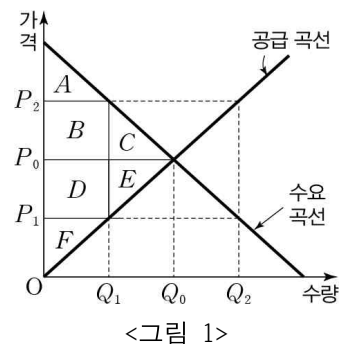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 경제[21~26번 지문][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피구와 코즈의 이론]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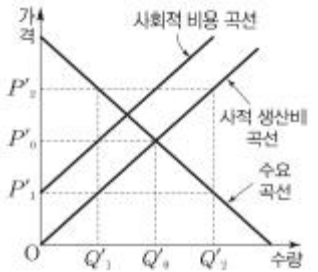
전통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을 향해 움직이고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되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말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로축이 재화의 양을, 세로축이 재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보듯,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나므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때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로축 좌표를 균형 거래량( $Q_0$ )이라 하고 세로축 좌표를 균형 가격( $P_0$ )이라 한다. 만약 현재의 시장 가격이  $P_2$ 라면, 수요량( $Q_1$ )에 비해 공급량( $Q_2$ )이 많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되므로 일부 생산자들은 가격을 낮춰 ㉠재고를 줄이려 들 것이다. 그러면 낮아진 시장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진 만큼 수요량이 늘어나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에 접근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되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는 그럴 때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총잉여가 최대가 된다는 뜻이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들의 지불 의향 가격에서 시장 가격을 뺀 값이고,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에서 생산자들의 판매 의향 가격을 뺀 값이다. 지불 의향 가격은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으로 소비자가 재화에 ㉢부여한 가치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 판매 의향 가격은 생산자가 기꺼이 판매할 의향이 있는 최소 가격으로 생산자가 재화의 생산에 들인 비용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의 수요 곡선은 지불 의향 가격(소비자가 부여한 가치)의 곡선을, 공급 곡선은 판매 의향 가격(판매자의 생산비)의 곡선을 나타낸다. 만약 소비자 한 명이 한 개의 재화만 소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P_2$  이상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수는  $Q_1$ 이다. 따라서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소비자 잉여는 A의 면적과 같다. 생산자 역시 재화를 하나씩만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재화를 생산하려는 생산자의 수는  $Q_2$ 이다. 하지만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가  $Q_1$ 에 불과해 실제로는  $Q_1$ 의 생산자만 재화를 팔 수 있으므로 생산자 잉여는 B, D, F의 면적을 합한 것과 같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인  $P_0$ 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C), 생산자 잉여는 (D+E+F)가 된다.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총잉여는 이 값(A+B+C+D+E+F)보다 커질 수가 없는데, 이것이 곧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구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통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생각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부정적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공장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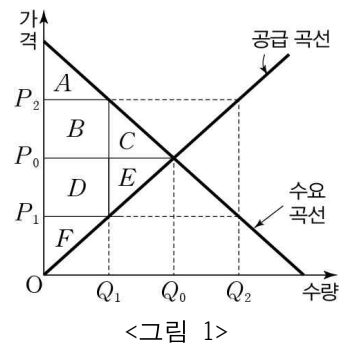
입지만 이러한 피해는 공장들의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피해를 누군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 곡선은 <그림 2>에서 보듯, 사적 생산비 곡선보다 위에 위치해야 한다. 이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최적의 생산량이 사회적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해 결정됨을 함축한다. 그래서 피구는 환경 부담금 같은 교정적 조세를 기업들에 ㉡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내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업들의 사적 생산비 곡선이 사회적 비용 곡선과 일치하게 되어 균형 거래량과 최적의 생산량도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장의 작동 원리에 따라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에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된다는 것이 피구의 생각이다.



반면 코즈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도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 안에서 시장의 작동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단, 피해를 끼친 주체와 피해를 당한 주체 중 누구에게 법적 권리가 있는지 결정되어야 하고 두 주체 간의 협상 비용이 없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령 ㉢갑은 강 상류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을은 강 하류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데, 갑의 공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여 을의 양어장에 피해를 끼친다고 하자. 피구는 정부가 갑에게 교정적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코즈는 갑과 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한다. 을이 강 하류에서 양어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부정적 외부 효과의 발생 자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법원은 갑의 폐기물 방출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을의 깨끗한 양어장 운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적 권리가 어느 쪽에 부여되든, 협상에 의해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내부화됨으로써, 비록 잉여의 분배 양상은 달라지지만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코즈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협상 비용이 없을 수 없고 법적 권리의 귀속에 대한 결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므로, 코즈의 생각을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전통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을 향해 움직이고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되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말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가로축이 재화의 양을, 세로축이 재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1)〈그림 1〉에서 보듯,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나므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때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로축 좌표를 균형 거래량( $Q_0$ )이라 하고 세로축 좌표를 균형 가격( $P_0$ )이라 한다. 2)만약 현재의 시장 가격이  $P_2$ 라면, 수요량( $Q_1$ )에 비해 공급량( $Q_2$ )이 많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되므로 일부 생산자들은 가격을 낮춰 ③재고를 줄이려 들 것이다. 그러면 낮아진 시장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진 만큼 수요량이 늘어나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①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이와 3)반대 현상이 일어나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에 접근할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당연히 첫 문단은 누구보다 잘 읽어야 합니다. 차분하게, 조금 속도를 줄여 읽으면 정리가 잘 될 테니, 한 번에 잘 안 읽었던 학생들은 조금 감속해 봅니다. 두 번째,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경제는 '개념'과 '관계'입니다, 결국 어떠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에 파생되는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배경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배경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기억을 잘 해두면 됩니다. 기억을 잘하려면 당연히 머리를 쓰는 것보다 손을 쓰는 것이 좋겠지요. 경제가 나온 김에 한 번 상기하고 가겠습니다.

- ①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라 우리 학생들은 기억할 것 같은데, 경제 지문에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가장 이상적,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직, 간접적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에 그래프가 있다면 이것은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첫 문장 읽을 때 차분히 읽다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옆 그래프의 교점을 한 번 확인하고 가 주시면 됩니다.
- ②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앞으로 사전 정보(B) 즉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들을 깔아주는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이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것을 사전 정보 암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사전 정보가 쏟아지게 되고, 정보량은 많을 것이며, 당연히 이 부분에서 출제는 되겠지만, 깊게는 안 물을 테니,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억이나 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때 기억은 ① 명사 위주(돌아갈 자리) / ② 누가 봐도 중요하게 각인되는 것들을 남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 문장을 직접 기출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2015학년도 수능 B형 '신채호의 아/비아' 지문의 첫 문단 마지막 문장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 이후에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 학습해보세요. 2, 3문단을 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기억이나 남기면서 가는 것이지요.
- ③ 그런데 이 지문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림 1>을 주었으므로 아무리 사전 정보를 암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림 1>을 보면서 몇 가지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것(주제)을 이해하기 위해 시장의 작동 원리(사전 정보)를 <그림 1>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프가 주어졌으니 설명을 읽으면서 그래프를 함께 보면서 대응이라도 하고 넘어가는 거죠.
- ④ 딱 세 가지를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지문에는 1), 2), 3) 이렇게 나눠두었습니다. 1) 무슨 말인지 알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공급량은 비례하니 수요 곡선은 \ (우하향 그래프), 공급 곡선은 / (우상향 그래프)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며 이해해줘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렇대. 기억이나 하고 시험 때는 내려가야 합니다. 우린 지금 메인 테마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정보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첫 문단은 끝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마찬가지로 붙잡고 있지 말고 일단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해를 해 봅시다. 이 부분만큼은 경제 초보자를 위해서 정말 쉽게 써 볼게요.

만약 현재의 시장 가격이  $P_2$ 라면, (눈을 그래프의 P2로 옮깁니다. 확인하셨죠?) 수요량( $Q_1$ )에 비해 공급량( $Q_2$ )이 많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되므로(눈을 P2 높이에서 그냥 가로로 이동합니다. 그럼  $Q_1$ 과  $Q_2$ 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더 큰가요? 말할 것도 없이 P2에 걸리는 수요 곡선의 점  $Q_1$ 보다 P2에 걸리는 공급 곡선의 점  $Q_2$ 가 더 크죠. 초과 공급이 됩니다.) 일부 생산자들은 가격을 낮춰 재고를 줄이려 들 것이다. 그러면 낮아진 시장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진 만큼 수요량이 늘어나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면 돼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 즉 교점을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3) 수업시간에 자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의 초과 공급은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과 수요는 그냥 반대가 된답니다. 출제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반대'가 되는 초과 수요를 묻겠지요? 반대! 라는 말을 딱 각인하고 내려가면 될 듯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주제)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 그래프를 보며 시장의 원리(사전 정보)를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1), 2), 3)은 개인마다 이해의 차이가 있으나, 그래프가 있으므로 확인하며 넘어갑시다.

-----1문단

그렇다면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되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는 그럴 때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총잉여가 최대가 된다는 뜻이다. (C)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자신의 지불 의향 가격에서 시장 가격을 뺀 값이고, (C)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에서 생산자들의 판매 의향 가격을 뺀 값이다. (C)지불 의향 가격은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으로 소비자가 재화에 부여한 가치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 (C)판매 의향 가격은 생산자가 기꺼이 판매할 의향이 있는 최소 가격으로 생산자가 재화의 생산에 들인 비용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의 수요 곡선은 지불 의향 가격(소비자가 부여한 가치)의 곡선을, 공급 곡선은 판매 의향 가격(판매자의 생산비)의 곡선을 나타낸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1문단에서 사전 정보 암시 문장이 보인 사람들은 바로 2문단 첫 문장에서 흐름을 다시 잡아야겠지요. 주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에 대해 신경 쓰고 읽어야 합니다. 주제니까요.
  - ②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 하필이면 공식입니다. 공식도 관계죠? 당연히 식을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적어야 합니다. 즉, 총잉여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③ 출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모를 것 같거든요. 당연히 설명해줘야 하는데 하필 설명이 또 공식입니다. 그냥 적습니다.  
- 소비자 잉여 = 지불 의향 가격 - 시장 가격  
- 생산자 잉여 = 시장 가격 - 판매 의향 가격
- 이거 우리 학생들은 PT 시즌 2에서 했던 내용이라 아마 어렵듯이 기억할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식을 쓰다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기억이나 할 거니까 굳이 이해하려 들지 않겠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굳이 이해라는 것을 해보면, '잉여'는 남는 것이잖아요? 소비자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가격이 7,000원이예요. 3,000원의 편익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게 사회적으로 모이면 소비자들의 잉여가 되는 것이겠지요. 생산자 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한 3,000원 돼요. 그럼 7,000원 잉여죠. 수업 시간에 한 말 그대로 써봤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흐름을 타면서, 식을 적어두는 일입니다. 관계는 출제가 되니까요.

④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 의향 가격이나 판매 의향 가격을 모를 것 같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느끼셔야 해요. 개념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뒤에 뭘 말하려고 개념을 또 짚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흐름을 기억하고, 느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 '이 흐름이군. 좋아. 이렇게 읽어야겠어. 이것이 중요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지 않습니다. 그냥 글을 차분히 열심히 잘 읽는 거죠. 다만 이러한 흐름에 익숙해지면 그냥 시험 때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읽어 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뒤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짚아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기억이나 해도 된다는 거죠. 수능 날 한 번은 보실 겁니다. 특히 법 지문 같은 경우도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들을 죽 설명하는 문단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냥 읽다보니 개념을 나열하는데? 음. 짚아주나보다 하고 기억이나 하고 내려가자는 겁니다.

⑤ 결국 '따라서' 이후가 출제자가 말하고 싶은 게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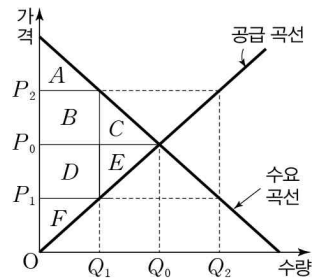
- 수요 곡선 = 지불 의향 가격 곡선 / 공급 곡선 = 판매 의향 가격 곡선 / 정리나 하면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소비자 한 명이 한 개의 재화만 소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P_2$  이상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수는  $Q_1$ 이다. 따라서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소비자 잉여는  $A$ 의 면적과 같다. 생산자 역시 재화를 하나씩만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재화를 생산하려는 생산자의 수는  $Q_2$ 이다. 하지만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가  $Q_1$ 에 불과해 실제로는  $Q_1$ 의 생산자만 재화를 팔 수 있으므로 생산자 잉여는  $B, D, F$ 의 면적을 합한 것과 같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인  $P_0$ 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C)$ , 생산자 잉여는  $(D+E+F)$ 가 된다.」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총잉여는 이 값  $(A+B+C+D+E+F)$ 보다 커질 수가 없는데, 이것이 곧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의미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위의 개념들을 적어가면서, 기억이나 하면서, 내려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힘들지 않습니다. 머리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손이나 쓰고 내려온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머리는 지금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래에도 주제와 관련된 문단을 읽고 있고, 「 」 이 부분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할 듯합니다. 경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금방 하실 거고, 경제 취약자의 경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의 초점은 경제 취약자들에게 있습니다.(최대한 친절하게 쓰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소비자 한 명이 한 개의 재화만 소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P_2$  이상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수는  $Q_1$ 이다.(눈으로 따라가며 확인합니다. 아까 수요 곡선 = 지불 의향 가격 곡선이라고 했지요? 가격이  $P_2$ 일 때, 그 이상 가격을 지불할 사람들은  $Q_1$ 까지입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소비자 잉여는  $A$ 의 면적과 같다.(실전에서는 굳이 이해할 필요 없이, 눈으로  $A$ 가 소비자 잉여구나 확인만 하면 됩니다. 감이 잡히면 더 좋고요. 실전에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하기 힘들 것이지만. 그래도 분석이라는 것을 할 때, 이해를 하고 싶다면, 소비자 잉여 공식을 떠올려 봅시다. 지불의향 가격 - 실제 가격입니다. 즉 0부터  $Q_1$ 까지의 소비자가  $P_2$ 보다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이고 이 사람 각각이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P_2$ 를 뺀 값을 사회적으로 모두 더한 값이 소비자 잉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 라는 면적이 되는 것이지요. 시험 때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산자 역시 재화를 하나씩만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재화를 생산하려는 생산자의 수는  $Q_2$ 이다.(역시 눈으로 따라가며 확인합니다.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생산자는  $Q_2$ 가 되지요. 우리는 1문단에서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확인했고요.) 하지만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가  $Q_1$ 에 불과해 실제로는  $Q_1$ 의 생산자만 재화를 팔 수 있으므로 생산자 잉여는  $B, D, F$ 의 면적을 합한 것과 같다.(이해하지 못해도 감은 잡아야 합니다. 즉  $P_2$ 가 가격이라면 그 위는 소비자 잉여가 되고( $A$ ),  $P_2$  밑은 생산자 잉여가 되네요.( $B+D+F$ ) 이렇게 감은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인  $P_0$ 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C)$ , 생산자 잉여는  $(D+E+F)$ 가 된다.(당연히 애가 중요하죠. 애도 이해되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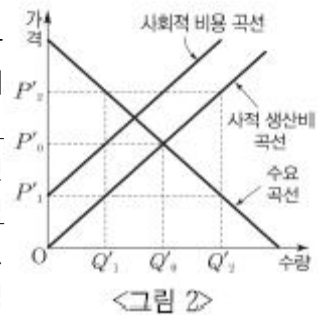


<그림 1>

②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총잉여는 이 값  $(A+B+C+D+E+F)$ 보다 커질 수가 없는데, 이것이 곧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그냥 중요하겠지요. 결국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최대인 것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는 것인가 봅니다.

-----2문단

그런데 피구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통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생각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C)부정적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공장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이러한 피해는 공장들의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피해를 누군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 곡선은 <그림 2>에서 보듯, 사적 생산비 곡선보다 위에 위치해야 한다. 이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최적의 생산량이 사회적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해 결정됨을 함축한다.」 그래서 피구는 환경 부담금 같은 교정적 조세를 기업들에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내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업들의 사적 생산비 곡선이 사회적 비용 곡선과 일치하게 되어 균형 거래량과 최적의 생산량도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장의 작동 원리에 따라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에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된다는 것이 피구의 생각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피구 입장에서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생기면 이게 잘 안 맞는데요. 내려갑시다.
- ② 부정적 외부 효과의 개념입니다. 차분하게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 」 부분 사례를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기출을 열심히 보셨다면 2012학년도 수능 외부성 지문에 있는 사례 그대로 출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외부효과의 사례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듯인데, 두 번째 「 」 부분은 쉬운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의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만 하면서 내려갑시다. 저는 오는 철저히 경제 취약자를 위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보면서 차분하게 읽어 내려갑시다. 완벽한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확인을 하자는 거죠.

하지만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피해를 누군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 곡선은 <그림 2>에서 보듯, 사적 생산비 곡선보다 위에 위치해야 한다.(이 말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회적 비용 곡선이 사적 생산비 곡선보다 위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된다면 우상향 곡선은 공급 곡선이고, 누군가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니 생산비보다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실전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어요. 그냥 눈으로 그래프 위치나 확인하고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최적의 생산량이 사회적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해 결정됨을 함축한다.(역시 눈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균형가격이 P0에서 P0과 P2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오르게 되죠. 쉽게 말해 가격이 오를 거예요.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요.)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뭘 다 이해하려고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 ④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피구는' 이후가 됩니다. 우리는 흐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피구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으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잘 안 맞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는 피구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피구는 '교정적 조세'를 기업들에 부과하여 '내부화' 하자고 주장하네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각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충 이해한다면 피해가 일어난 만큼 딱 세금을 부과하면 다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3문단

반면 코즈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도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 안에서 시장의 작동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단, 1)피해를 끼친 주체와 피해를 당한 주체 중 누구에게 법적 권리가 있는지 결정되어야 하고 2)두 주체 간의 협상 비용이 없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령 ㉠같은 강 상류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을은 강 하류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데, 갑의 공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여 을의 양어장에 피해를 끼친다고 하자. 피구는 정부가 갑에게 교정적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코즈는 갑

과 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한다. 을이 강 하류에서 양어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부정적 외부 효과의 발생 자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법원은 갑의 폐기물 방출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을의 깨끗한 양어장 운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적 권리가 어느 쪽에 부여되든, 협상에 의해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내부화됨으로써, 비록 잉여의 분배 양상은 달라지지만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코즈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협상 비용이 없을 수 없고 법적 권리의 귀속에 대한 결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므로, 코즈의 생각을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코즈’ 나왔으니까 피구랑 뭐가 다르겠지요. ‘차이’나 챙기면서 내려갑시다.
- ② 쉽게 말해 코즈는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단 1)과 2)의 조건이 충족된다면!이네요.
- ③ 조건은 그냥 기억하면서 흘러가도 될 것 같습니다.
- ④ 「 」 부분 사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설명 읽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서!
- ⑤ 코즈의 생각은 아무래도 조금 현실적으로 힘든가 봅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 말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냥 우리는 조세 없이도 시장에서 할 수 있나보다 조건이 갖춰지면! 그런데 조건이 실제로 갖춰지기 힘들니 사실 상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생각인가보다 하고 끝내면 될 듯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문단까지의 독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 4문단도 중요하지만, 3, 4문단은 아무래도 수월하게 읽힐 것입니다. 1문단에서 사전 정보 암시 문장이 보이는지, 그리고 그래프 대응할 때 이해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물론 이해하면 더 좋은 거고요.) 경제는 개념과 관계입니다. 개념이 특히 관계, 특히 공식으로 설명되어 있으면 손을 쓰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프를 확인하면서도 잘 흘러갔어도 이 지문은 해결될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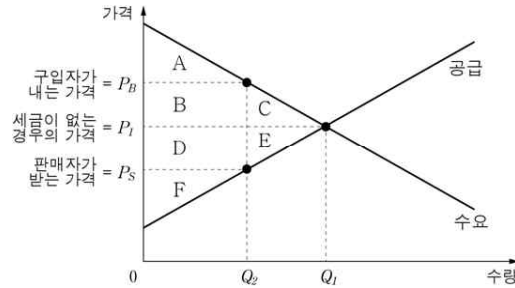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문단

[추가 문제 풀이 훈련 1] 조세와 시장의 관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득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프>

<그래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_1$ 이고 균형 거래량은  $Q_1$ 이다. 균형 가격  $P_1$ , 균형 거래량  $Q_1$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래프>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 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 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 이다.

<그래프>에서 ㉠세금이  $\overline{P_2P_3}$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_1$ 에서  $P_2$ 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 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_1$ 에서  $P_3$ 로 낮아져  $F$ 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_1$ 에서  $Q_2$ 로 감소한다.  $\overline{P_2P_3}$ 에  $Q_2$ 를 곱한 값인  $B+D$ 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B$ 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 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 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 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 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수실이라고 한다.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을 의한 경제적 순수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을 의한 경제적 순수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실은 경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수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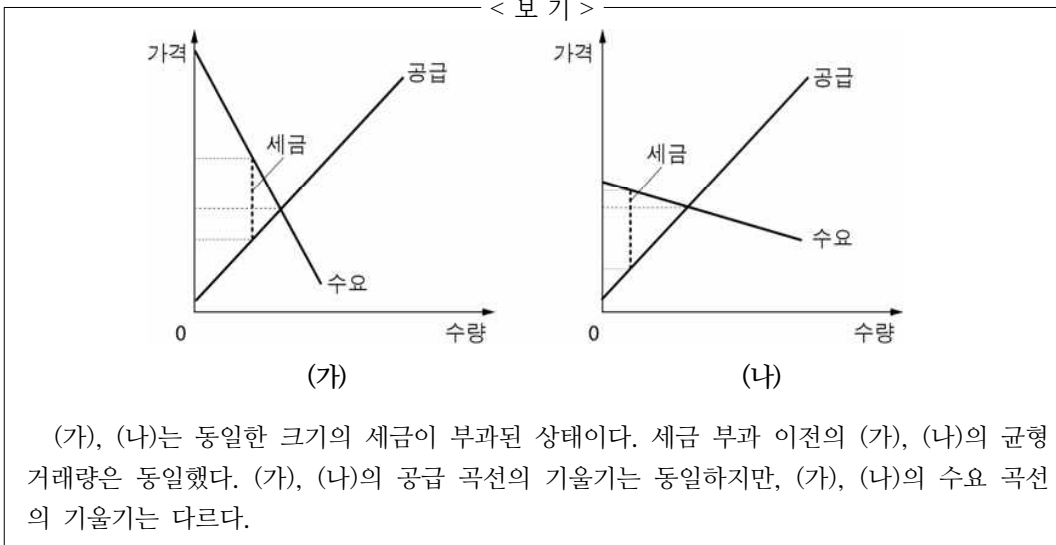
\*소비자 잉여 : 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생산자 잉여 :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개념과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③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 부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⑤ 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자 잉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손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부가 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의 정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최근 부가 가치세 면세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준 것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은 것이겠군.
- ②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들까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면세 범위를 넓히면 그 상품들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겠군.
- ③ 부가 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군.
- ④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군.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 ㉠.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 ㉡.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 ㉢.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 ㉣.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보다 커진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추가 문제 풀이 훈련 2] 외부성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5.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보 기 >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b$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b$ 보다 ( ㉡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 ), 생산량을  $Q_b$ 보다 ( ㉣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     |
|-------|-----|-----|
| ㉡     | ㉢   | ㉣   |
| ① 줄이면 | 크다면 | 줄이는 |
| ② 줄이면 | 크다면 | 늘리는 |
| ③ 줄이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④ 늘리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⑤ 늘리면 | 작다면 | 늘리는 |



**[정답 및 해설]**

1. ③

정답해설 :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순수손, 가격 탄력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 ②

정답해설 : 부과된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공급 곡선이 동일할 때, (가)는 (나)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더 크다.  
[오답풀이] ⑤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다.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것이다.

3. ①

정답해설 :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것은 세금으로 인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4. ①

정답해설 : 세금이 부과되어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며 얻게 되는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시장 거래량은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5. ②

정답해설 : 외부성은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인데, 두 경우 모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이익을 준다고 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둘째 문장을 보면,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 이는 개별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③ 4문단 첫 문장에서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해결 방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 2문단 처음을 보면, 사회 전체로 보아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효율성이 충족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며, 비효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을 보면,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부성'이라고 볼 수 없다.

6. ①

정답해설 : ㉠의 사례는 외부성으로 인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즉,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해진다. 이 경우, 생산량을 이윤 극대화하는 양보다 줄이게 되면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크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은 남과 비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도 아직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말을 마음에는 품고 살았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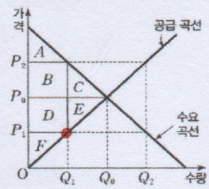
남과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비참해질 것이고요.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자, 그 자체로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나는 나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하며,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맙시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상대방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맙시다.  
이것은 아직은 무명 강사인 저 스스로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을 향해 움직이고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되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말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로축이 재화의 양을, 세로축이 재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보듯,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나므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때 두 곡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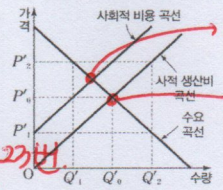
<그림 1>

만나는 지점의 가로축 좌표를 균형 거래량( $Q_0$ )이라 하고 세로축 좌표를 균형 가격( $P_0$ )이라 한다. 만약 현재의 시장 가격이  $P_1$ 라면, 수요량( $Q_1$ )에 비해 공급량( $Q_2$ )이 많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되므로 일부 생산자들은 가격을 낮춰 재고를 줄이려 들 것이다. 그러면 낮아진 시장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진 만큼 수요량이 늘어나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①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에 접근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되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는 그럴 때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총잉여가 최대가 된다는 뜻이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들의 지불의향 가격에서 시장 가격을 뺀 값이고,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에서 생산자들의 판매의향 가격을 뺀 값이다. 지불의향 가격은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으로 소비자가 재화에 ① 부여한 가치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 판매의향 가격은 생산자가 기꺼이 판매할 의향이 있는 최소 가격으로 생산자가 재화의 생산에 들인 비용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의 수요 곡선은 지불의향 가격(소비자가 부여한 가치)의 곡선을, 공급 곡선은 판매의향 가격(판매자의 생산비)의 곡선을 나타낸다. 만약 소비자 한 명이 한 개의 재화만 소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P_2$  이상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수는  $Q_1$ 이다. 따라서 시장 가격이  $P_2$ 일 때 소비자 잉여는 A의 면적과 같다. 생산자 역시 재화를 하나씩만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이  $P_3$ 일 때 재화를 생산하려는 생산자의 수는  $Q_2$ 이다. 하지만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가  $Q_1$ 에 불과해 실제로는  $Q_1$ 의 생산자만 재화를 팔 수 있으므로 생산자 잉여는 B, D, F의 면적을 합한 것과 같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인  $P_0$ 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C), 생산자 잉여는 (D+E+F)가 된다.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총잉여는 이 값(A+B+C+D+E+F)보다 커질 수가 없는 데, 이것이 곧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구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통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생각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부정적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

한다. 가령 공장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이러한 피해는 공장들의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피해를 누군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 곡선은 <그림 2>에서 보듯, 사적 생산비 곡선보다 위에 위치해야 한다. 이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최적의 생산량이 사회적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그림 2>

지점에 의해 결정됨을 함축한다. 그래서 피구는 환경 부담금 같은 교정적 조제를 기업들에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업들의 사적 생산비 곡선이 사회적 비용 곡선과 일치하게 되어 균형 거래량과 최적의 생산량도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장의 작동 원리에 따라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에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된다는 것이 피구의 생각이다.

반면 코즈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도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 안에서 시장의 작동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이 생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단, 피해를 끼친 주체와 피해를 당한 주체 중 누구에게 법적 권리가 있는지 결정되어야 하고 두 주체 간의 협상 비용이 없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령 ①같은 강 상류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을은 강 하류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데, 강 하류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여 을의 양어장에 피해를 끼친다고 하자. 피구는 정부가 잡에게 교정적 조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코즈는 잡과 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한다. 을이 강 하류에서 양어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부정적 외부 효과의 발생 자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법원은 잡의 폐기물 방출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을의 깨끗한 양어장 운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적 권리가 어느 쪽에 부여되든, 협상에 의해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내부화됨으로써, 비록 잉여의 분배 양상은 달라지지만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코즈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협상 비용이 없을 수 없고 법적 권리의 귀속에 대한 결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므로, 코즈의 생각을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다.

21.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균형 거래량과 최적 생산량은 동일한 개념이다.
  - ② 법적 권리의 귀속은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나 법원 등에.
  - ③ 전통 경제학자들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고려하여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시 들어맞지 X.
  - ④ 코즈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내부화되지 않으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 ⑤ 많은 학자들은 코즈가 시장 안에서 모든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22. 전통 경제학자들의 관점에 따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에 비해 적은 상태이다. *→ 총잉여 ↓ 자원활용 효율성 ↓*
- ② <그림 1>에서 시장 가격이  $p_1$ 일 때 수요량이  $(Q_1 - Q_2)$ 만큼 공급량을 초과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 수요량  $Q_2$ , 공급량  $Q_1$*
- ③ 재고가 부족한 일부 생산자들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생김으로써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태이다.
- ④ 재고가 부족한 일부 생산자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시장 가격이 오르면 새로운 생산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이다. *가격 ↑ → 수요 ↑, 공급 ↑*
- ⑤ 제화를 하나씩만 소비하거나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가격보다 판매 의향 가격이 낮은 생산자 수가 시장 가격보다 지불 의향 가격이 높은 소비자 수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초과공급상태*

23. <그림 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여 교정적 조제를 부과하면 균형 가격이  $P_0$ 보다 높아진다.  *$P_0$ 에서 더 위쪽으로 이동. 사회적생산비용선과 수요곡선의 교점*
- ②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여 교정적 조제를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이  $Q_0$ 보다 작아진다.  *$Q_0$ 에서 왼쪽으로 이동*
- ③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도 교정적 조제를 부과하지 않으면, 균형 거래량이 최적 생산량을 초과한다. *→ 최적생산량에 가까워짐*
- ④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는 교정적 조제를 부과하면 공급량이  $Q_1$ 과  $Q_0$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⑤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는 교정적 조제를 부과하면 시장 가격이  $P_1$ 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 시장가격이 균형가격을 향해 간다 →  $P_0$ 을 향해 움직인다*

24. 윗글의 '피구'와 '코즈'가 모두 동의할 만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가격은 언제나 균형 가격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 '시장의 작동원리'*
- ②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는 항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부정적외부효과 발생시 극대화X(피구의견)*
- ③ 정부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최적의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의 작동원리에 따라 최적생산량 결정(틀다)*
- ④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과정에 시장 외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 법원, 세금 부과 등 언급. → 균형거래량을*
- ⑤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기업이 피해를 당한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피해를 끼친 주체*

25. <보기>는 윗글의 ㉠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갑'과 '을'의 협상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윗글의 '코즈'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초기 상태에서 갑은  $\alpha$ 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고 을은  $\beta$ 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는다고 하자. 그리고 갑이 공장에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c$ , 정화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을이 추가로 얻는 생산자 잉여를  $v$ 라고 하자.  $v$ 가  $c$ 보다 클 경우 양측의 협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단, 협상 비용은 없으며, 총잉여의 변동은 오직 생산자 잉여의 변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I.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  
을은 갑에게  $p(c < p < v)$ 만큼의 보상을 제안하면서 정화 시설 설치를 요구할 것이고, 갑은 이를 수락할 것이다. 이 경우 갑의 잉여는  $(\alpha + p - c)$ , 을의 잉여는  $(\beta - p + v)$ 가 된다. *25-1*

II.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  
갑은 정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을에게 동의할 것이다. 이 경우 갑의 잉여는  $(\alpha - c)$ , 을의 잉여는  $(\beta + v)$ 가 된다. *25-5*

따라서 어느 경우든 갑과 을의 생산자 잉여를 합한 값은 협상 이후에  $(\alpha - c + \beta + v)$ 라는 동일한 값으로 증가한다. 한편,  $v$ 가  $c$ 보다 작을 때에는, 갑과 을의 생산자 잉여를 합한 값이 초기 상태보다 증가하지는 않지만 법적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하든 그 값이 동일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25-2*

- ①  $v$ 가  $c$ 보다 클 경우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 초기 상태보다 갑의 잉여는 증가하지만 을의 잉여는 감소하겠군. *을의 잉여도 증가*
- ②  $v$ 가  $c$ 보다 클 경우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는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와 달리, 초기 상태보다 총잉여가 증가하지 않겠군. *두 경우 모두 총잉여 증가*
- ③  $v$ 가  $c$ 보다 클 경우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는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와 달리, 초기 상태보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겠군. *두 경우 총잉여 같음 → 자원활용 효율성 동일*
- ④  $v$ 가  $c$ 보다 작을 경우 갑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는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와 달리, 갑과 을의 각각의 잉여가 모두 초기 상태와 달라지지 않겠군. *총합은 변하지 않지만, 각각은 변화*
- ⑤  $v$ 가  $c$ 보다 작을 경우 을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질 때, 갑의 공장에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경우로 볼 수 있겠군. *→ 생산자 잉여를 합한 값(총잉여)이 증가: 총잉여가 최대가 될 때 자원활용 효율성 ↑*

26.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은?

- ㉠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再考)해 볼 필요도 없다.
- ㉡ ㉡: 자원봉사자들은 이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부여(賦與)하였다.
- ㉢ ㉢: 올해 이 나무에서 탄 열매의 양은 작년의 배출(倍出)이다.
- ㉣ ㉣: 환절기에는 밤과 낮의 기온의 교차(數差)가 심하다.
- ㉤ ㉤: 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賦課)하였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석지 제작진 일동